

단기인턴십

period	01-02	date		teacher	
subject	현장섭외				
goal	여름학기 준비 과정에 이어서 현장 섭외를 2차시 동안 진행한다.				
step	contents			prepare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학기 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학기 현장 섭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섭외 현재 상황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섭외 완료 : 완료 이후 해야할 과정에 대해 개별 과제를 준다. 섭외 미완료 : 섭외에 필요한 과정에 대한 개별 과제를 준다. 			-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과제 시작 (1학기 포트폴리오 및 인턴십 현장 탐색 및 섭외 과제를 이어서 함) 			노트북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인턴십 리스트업 (여름학기 진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배들의 인턴십 활동 중 인상이 깊었던 현장 또는 활동이나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곳을 이야기해본다. 각자 고민하고 있는 인턴십 현장을 1차로 공유하고 현재 인턴십 공유 페이지에 좋아요 찍는 것을 안내한다. 인턴십 페이지 생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인턴십

period	03-04	date	teacher
subject	직장예절과 CS교육		
goal	직장 내에서 꼭 지켜야 할 예절과 고객센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step	contents	prepare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의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학기 현장 섭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예절과 CS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예절 : 조직 생활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들 CS : Customer Satisfaction(Service) 고객 만족 	청소년 노동권리수업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플로우와 함께 하는 직장예절 및 CS교육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인 탐구생활 : 영상 보고 좋은 상사 질문하기 이국재의정보톡톡 : 영상 보고 좋은 직원(신입) 질문하기 유병재의 알바천국 : 영상 보고 진상 손님 질문하기 카파 알바생 리얼 공감 : 영상 보고 진상 점원 질문하기 김창욱의 포프리쇼 :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노트북 스마트폰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실의 조직 생활 3개념 : 개념, 예의, 눈치 (활동지와 함께)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 내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나의 자세 (도덕, 조직 규칙 등) 예의 : 나이, 직급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에서 꼭 지켜야 할 선 눈치 : 지금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업무 용어 대혼종 BEST 20 / https://ppss.kr/archives/173572 사실 일은 말로 하는게 아니니까 https://brunch.co.kr/@roysday/225 		
re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4차시)

직장생활 10계명

1. 생각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습관을 바꾸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2. 쓸데 없는 걱정은 금물!

우울, 불안, 걱정 등 감정의 포로가 되는 것은 금물!

쓸데없는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3.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말이나 행동에 앞서 세 번씩 생각해보세요.

4. 감사의 마음은 표현이 필요해!

감사의 마음을 목례나 눈인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인사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5.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요.

6.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

손님, 고객, 직장 선배들을 마음을 챙기기 전에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챙겨주세요.

7. 나의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해!

스스로 잘하는 일, 주변 동료들에 도움을 주었던 일 등 자신의 가치를 퇴근할 때 떠올려보세요.

8.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패에서 배우되 현재를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9. 매력적인 사람이 최고!

'독한 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게 되고 '능력자'는 시기와 질투를 받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

일이 힘들어질 때, 왠지 자신감이 떨어질 때 동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단기인턴십

period	05-06	date		teacher	
subject	단기인턴십 활동 공유하기				
goal	아지트에 올린 활동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활동한 내용을 공유한다.				
step	contents			prepare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의 수업 5월부터 준비한 단기인턴십 전체 활동 과정에 대해 돌아본다. 			-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요약 일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슬라이드로 구성해서 대략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교사사 요약 정리한다. 			-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십 활동 공유하기 - 아지트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활동 내용을 공유한다. 			-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인턴십

period	07	date	1015	teacher	허실
subject	노동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				
goal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을 공부하고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step	contents				prepare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학기 수업 안내 <p>총 6회 / 일과 노동, 외부 특강, 최적생계비, 복지와 복리후생, 노동자 관찰 및 인터뷰, 노사협상</p>				-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이란 무엇인가 <p>일이란 무엇인가, 노동이란 무엇인가, 일과 노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노동에 대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일을 해야 할까. 일은 정말 자아실현의 수단일까. : 만약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인간은 일을 선택할까. 여기서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p>				-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교육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노동권리수첩 나눠주고 훑어보기 - 이런 수첩은 왜 필요할까 : 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왜 우리 사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나쁠까 / 지대넓얕 내용을 참고해서 이야기하기. - 영상시청 : 하종강 / 노동과 꿈 대표 / 노동,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내용을 공유(특강)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의 평범성이라는 테제를 제시한 한나 아렌트의 노동개념 : 인간 활동을 세가지 개념으로 요약. 노동(labor) : 생존을 위해 필수로 해야 하는 일 / 소비와 연결 작업(work) : 손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소비보다 사용의 대상. 행위(action) :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는 활동 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경제 행위를 통해 나온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개념 : 여러 조합 중에서 생협이 가장 잘 되는 이유 중 하나. 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과 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합은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 협동조합이 대한민국에서 잘 되지 못하는 이유 : 조합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위인데 한국은 가치가 필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 				
re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차시는 외부 특강 진행 				

활동지(7차시)

[야! 한국사회] 노동이란 두 글자

박권일 계간 'R' 편집위원 | 20121008

작년 연말 통합진보당 출범을 앞두고 당명이 논의되던 시기였다.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부산시당사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사진 속 그들은 사뭇 결연한 표정으로 어떤 문장을 적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노동이란 단어로 통합당에 재 뿌리지 마라!” 나는 그 사진을, 정확히 말해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인상은 평범했다. 어딜 봐도 자신의 견실한 노동으로 삶을 꾸려가는 한국의 보통사람들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저토록 노동이란 두 글자를 혐오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자기 삶의 지평이자 수단을 저리도 경멸하게 만들었을까?

사실 이런 질문은 순진한 물음이다. 이유는 명백했다. 당명에 들어가는 ‘노동’이란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저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진보’는 허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노동’은 안 될 말이었다. ‘노동’은 과격하고 독선적인 운동권의 언어였고, 극소수 ‘빨갱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단어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에 재를 뿌리는” 말이 된다.

조직된 노동자의 힘이 약해지고, 노동 이슈를 전면에 내건 진보정당이 게토화하면서 노동자적 관점은 물론이고 ‘노동’이란 단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과거 ‘노동’이 점유했던 자리를 차지한 것은 ‘20 대 80 사회’나 ‘1% 대 99%’ 같은 새로운 레토릭이다. 특히 월가 점거 시위 이후 이런 표현은 ‘대세’가 됐다. 하지만 그 ‘99%’에는 부동산과 금융거품에 편승해 불로소득을 챙긴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와 생활임금조차 못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런 질문으로 바꿔 보자.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느라 빚을 진 ‘하우스푸어’와 비닐하우스에 사는 ‘비닐하우스푸어’를 싸잡아 ‘빈민’(푸어)이라 부르는 것이 온당한가?

최근 트위터에서 유행한 ‘출판사 옆 대나무숲’ 등의 계정은 악질적인 ‘갑’들에 착취당하는 ‘을’의 비명을 생생하게 전하며 공감을 샀지만, 막상 그들 개개인의 불평이 노동자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나무숲의 많은 ‘을’들은 자신이 약자라서 착취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냉소주의를 되새길 뿐이다. 노동을 소거하고 계급 분석을 생략한 자본주의 비판은 복잡하고 침예한 계급 적대의 동학을 단순한 마니교적 신화로 만들고 만다. “저들 상위 1%의 비도덕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번 대선 최대의 정책의제가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유력한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책 내용은 하나같이 두루뭉수리이고, 실체가 불분명하다. 당연하다. 노동의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없기 때문이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일갈했듯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이다. 경제민주화가 종종 재벌 개혁과 등치되곤 하지만, 단언컨대 노동권의 강화 없는 재벌 개혁은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선출된 권력이 재벌 앞에 무력해진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다. 삼성과 이견회에 대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5년짜리 정치권력이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 리 없다.

스웨덴이 재벌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스웨덴 재벌이 유별나게 착해서가 아니다. 여차하면 자본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강대한 조직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당연시될 정도로 노동자의 힘이 강해지면 재벌 개혁은 그제야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노동이란 두 글자를 사회적으로 복권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단기인턴십

period	09	date	1113	teacher	허실
subject	한 달 생활비 계산하기				
goal	최저임금과 더불어 최저생계비를 계산해보고 노동자로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step	contents				prepare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돌아보기 단기인턴십,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프리다특강 한나 아렌트의 인간 활동의 세가지 개념 - 노동, 작업, 행위 				-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럼 : 88만원 세대와 88억 세대 김규향 노동자와 대비되는 사용자의 기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며 노동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활동지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적 생계비 계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주 프리다 특강을 통해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의 차이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자. 1인 가구 / ① 어느 정도 절약하고 어느 정도 소비도 하는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적 생계비 / ② 생존만 가능한 최저생계비 				활동지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9차시)

최적생계비? 최저생계비? 얼마면 돼?

최적생계비		최저생계비	
항목	비용	항목	비용
이동		이동	

단기인턴십

period	10	date	1120	teacher	허실
subject	복지와 복리후생				
goal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돌아보고 복지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step	contents				prepare
int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돌아보기 단기인턴십,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프리다특강 한나 아렌트의 인간 활동의 세가지 개념 - 노동, 작업, 행위, 최적생계비 				-
warm-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럼 : 9980:20 김규향 칼럼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의 개수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내가 아는 직업의 종류의 한계를 알고 더 새로운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활동지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아한 버킷리스트, 우아한 복지리스트 (세바시 433회, 우아한 버킷리스트) 세바시 강연을 보며 우아한 형제들의 회사 성장 배경 및 복지 정책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회사와 복지 제도에 대해 써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쓰기 전 2014년 교사회에서 공유한 복지 제도 제안서인 '파뿌리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한다. 				활동지
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수업 내용을 공유(단체교섭)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c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10차시)

우아한 버킷리스트, 우아한 복지리스트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또는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복지 제도를 운영할거야 :)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복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